악몽의 8회·절망의 9회 … 호랑이, 5연패 '수렁'

KIA, 삼성에 3연속 역전패
양현종 1703번째 탈삼진
이강철 넘어 타이거즈 최다 기록

"면목 없습니다" 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3-6으로 역전패한 KIA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승조가 흔들리면서 '호랑이 군단'이 5연패에 빠졌다.

KIA 타이거즈가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3차전에서 3-6 역전패를 당했다.

앞선 삼성과의 두 경기에서는 장현식이 '악몽의 8회'를 보내면서 연달아 패배가 기록됐고, 1일에는 3-2로 앞선 9회초 정해영이 야수진의 아쉬운 수비로 4실점하면서 무너졌다.

앞선 KT전부터 시작된 패배는 결국 5경기까지 이어졌다.

선발 양현종이 7이닝을 2실점으로 버티면서 분전했지만 이번에도 뒷심싸움에서 밀렸다.

KIA가 1회 뷰캐넌을 상대로 선취점을 가져오는 등 시작은 좋았다.

1사에서 김선빈이 중전안타로 공격을 열었다. 나성범의 유격수 땅볼로 선행주자가 아웃됐지만 박동원의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2사 1·2루가 됐다. 최형우의 볼넷이 이어지면서 베이스가 가득 찼다.

이어 황대인이 중전안타를 날리면서 2타점을 올렸다.

2회에는 소크라테스가 선두타자로 나와 뷰캐넌의 142㎞짜리 커터를 우중간으로 넘기면서 3-0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홈런을 끝으로 KIA는 추가 득점 없이 잔루만 쌓았고, 흐름이 삼성에 넘어갔다.

양현종이 3회 선두타자 김현준에게 우측 2루타를 맞은 뒤 김지찬의 내야 안타 그리고 이원석의 희생플라이로 1실점 했다.

이후 양현종이 큰 위기 없이 4, 5, 6회를 넘겼다.

양현종이 '천적' 최영진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면서 시작된 7회. 대타 김동엽의 땅볼로 선행주자를 잡아냈고, 이재현은 2루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면서 2사 1루가 됐다.

하지만 김현준과 김지찬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양현종이 두 번째 실점을 기록했다.

덕아웃에서 투수 교체 움직임이 있었지만 양현종이 피렐라와의 승부를 자청했고, 결과는 2루수 땅볼로 '해피 엔딩'이었다. 하지만 양현종은 마지막까지 웃지 못했다.

전상현을 내세워 8회초를 실점 없이 넘긴 뒤 8회말 나성범이 중견수 옆으로 빠지는 타구로 2루까지 내달렸다.

승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에서 KIA는 4번 타자 박동원의 희생번트를 선택했다. 나성범이 희생번트로 3루까지 안착했지만 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최형우의 고의 사구로 1사 1·3루, 황대인의 타구가 멀리 뻗지 못하고 2루수 플라이로 끝났다.

이번에는 소크라테스가 고의 사구로 나가면서 베이스가 가득 찼지만, 김석환의 유격수 땅볼이 나오면서 KIA는 무사 2루 기회를 날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바로 위기가 찾아왔다.

마무리 정해영이 1점의 승부를 지키기 위해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김동엽과의 승부에서 아쉽게 3루수 김규성이 공을 잡지 못하고, 공이 뒤로 빠지면서 좌전안타가 됐다.

이재현이 번트에 실패한 뒤 강공에 나섰고, 전진 수비를 하고 있던 1루수와 2루수 사이로 땅볼 타구가 빠져나가면서 무사 1·2루가 됐다.

김현준의 희생번트로 2사 2·3루. 정해영이 2볼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김지찬에게 우측 2루타를 허용하면서 3-4로 승부가 뒤집혔다.

이어 피렐라의 타구가 외야로 향했고, 우익수 나성범이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해봤지만 공이 뒤로 빠지면서 1타점 3루타가 됐다.

3-6의 상황에서 삼성 마무리 오승환이 3경기 연속 마운드에 올랐다.

1사에서 류지혁의 중전안타가 나왔지만, KIA는 후속타 불발로 오승환에게 세이브를 안겨줬다.

한편 5연패 아쉬움 속에서 선발 양현종이 타이거즈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양현종은 2회 첫 타자 강민호를 3구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통산 1703번째 탈삼진을 기록했다. 이강철이 가지고 있던 타이거즈 최다 탈삼진 기록인 1702개를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양현종은 지난 4월 26일 KT와의 원정경기에서는 KBO리그 역대 1700탈삼진을 채우면서, 선동열(1698개)을 넘어 역대 탈삼진 부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10승 14패 … 아쉬운 4월

수비 실책 많고 타선 집중력 부족
1점 차 패배 5차례 기록

10승 14패, '김종국호'의 첫 달이 아쉬움 속에 끝났다.

4월 2일 LG와의 개막전과 함께 2022시즌의 대장정을 시작한 KIA는 지난 30일 삼성전 4-5 역전패로 4월 일정을 마무리했다.

들쑥날쑥한 경기력으로 고전한 KIA의 4월 성적은 10승 14패, 승률 0.417.

에이스 양현종이 돌아왔고,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나성범에 이어 트레이드를 통해 박동원까지 영입한 만큼 기대에는 한참 부족한 성적이다.

KIA는 개막 시리즈에서 LG에 2패를 당한 뒤, 이어진 한화와의 맞대결에서 싹쓸이 3연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첫 원정길에서 SSG에 내리 3연패를 당하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롯데와의 경기에서 행운의 노게임이 나왔고, 상대전적이 좋지 못했던 NC와 키움을 상대로 위닝시리즈도 가져왔지만 5할 승률에는 실패했다.

타선의 집중력 부재로 아쉽게 1점 차로 패한 경기가 5차례 이른다.

단 한 점도 만들지 못한 영봉패도 3차례 있었다. 하지만 3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내는 폭발력도 보여주는 등 기복 많은 타선이었다.

시즌을 준비하면서 강조했던 '수비', '스피드'가 오히려 KIA 질주를 막았다.

개막전에서 김선빈의 연속 실책과 함께 시작된 KIA의 실책 퍼레이드는 30개까지 이어졌다. 팽팽한 승부의 추를 기울이는 결정적인 실책도 많았다.

수비를 우선 언급했지만 내야가 흔들리면서 고전한 KIA는 반대로 스피드를 통한 상대 흔들기에도 실패했다. KIA는 4월 한 달 7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롯데(6개)에 이어 뒤에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예측불허의 타선이 4월 약점이 됐지만 선발진의 순항은 5월 반전의 힘이 될 전망이다.

KIA는 돌아온 양현종을 필두로 션 놀린-로니 윌리엄스-이의리-한승혁으로 선발진을 꾸렸다.

놀린이 첫 등판에서 팔꿈치에 공을 맞는 부상을 당했고, 로니도 좌측 하지 임파선염으로 앞선 등판을 소화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웠지만 임기영이 가세해 빈 틈을 채웠다.

손가락 물집으로 실전이 부족했던 이의리도 지난 4월 29일 시즌 5번째 등판에서는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는 등 선발진은 4월 3.03의 평균자책점을 찍었다.

김종국은 감독은 1일 "경기력은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실력이다. 뒷심이 부족하고, 디테일한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5월에는 반격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발진들이 안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반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선발 투수들로 버텼다"며 "안타도 많이 나오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상승 그래프다. 득점 생산력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아시아 챔스리그 조별리그 3위로 탈락

태국 빠툼U와 0-0 무승부

K리그2팀 최초의 'FA컵 우승'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 도전했던 전남드래곤즈가 조 3위로 조별리그 일정을 마쳤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30일 태국 빠툼 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빠툼 유나이티드(태국)와의 2022 ACL 조별리그 G조 최종 6차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필리핀의 유나이티드 시티에 2승을 기록했던 전남은 멜버른 시티(호주)와 빠툼을 상대로 승점 1점씩 보탰지만 승점 8, G조 3위에 그치면서 조별리그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전남은 지난해 FA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K리그2팀 최초로 ACL 무대를 밟았다. 또 2008년 이후 14년 만의 ACL 도전이었지만 목표했던 16강은 이루지 못했다.

전경준 감독은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결과를 내지 못해 아쉽고, 결과를 내지 못한 건 전적으로 감독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했고, 다시 ACL 무대를 밟을 수 있다면 그땐 실패하지 않고 16강, 8강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지만 전남은 좋은 경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전 감독은 "축구는 판정승이 없다. 결과를 내는 팀이 이기는 게 축구다"며 "과정과 결과 모두 만들어야 하는 게 감독인 내 역할이다. 과정만 좋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좋은 축구라고 할 수 없다. 과정이 미흡할 순 있지만 결과를 내는 힘이 있다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바쁜 일정을 소화한 전남은 이제 '승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야 한다. 전남은 오는 7일 2위 부천FC 안방으로 가서 리그 일정을 재개한다.

전 감독은 "리그 중간에 ACL을 참가하면서 미뤄진 경기들을 치러야 하는 타이트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경험을 위해 ACL에 나오는 팀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고, 돌아가서 ACL로 인해 누적된 피로 때문에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레알 마드리드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멜레스 광장에서 35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팬들과 함께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알, 라리가 우승 … 통산 35번째 정상

안첼로티 감독 유럽 5대 리그 모두 우승 대기록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를 지휘하는 카를로 안첼로티(63·이탈리아) 감독이 유럽 5대 리그에서 모두 우승을 이루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4월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1-2022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4라운드 에스파뇰과 홈 경기에서 4-0으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승점 81점(25승 6무 3패)을 쌓은 선두 레알 마드리드는 2위 세비야(승점 64·17승 13무 4패)와 승점 차를 17로 벌려 남은 4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두 시즌 만의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라리가 최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 기록을 35회로 늘렸다. 이 부문 2위 FC바르셀로나는 라리가에서 26차례 우승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은 안첼로티 감독은 사상 처음으로 유럽 5대 리그에서 모두 우승한 지도자가 됐다.

안첼로티 감독은 2003-2004시즌 AC밀란을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으로 이끌었고, 2009-2010시즌에는 첼시를 이끌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정상에 올랐다.

또 2012-2013시즌 프랑스 리그1에서 파리 생제르맹(PSG)을, 2016-2017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각각 우승으로 이끌었다.

안첼로티 감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레알 마드리드를 이끈 적이 있는데, 이때는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으나 정규리그에서는 정상에 서지 못했다.

하지만 6년 만에 다시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에 오르고서 첫 시즌에 숙원이었던 라리가 우승을 달성해냈다.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뒤 "베르나베우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분위기가 정말 특별하다"면서 "내가 만약 마지막 휘슬이 불리는 순간 울었다면, 그건 기뻐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